



새로운 취미가 생긴다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시작한 필라테스, 근육이 줄어들면 아파오는 허리 때문에 시작한 PT, 남편 따라 시작한 러닝, 주말에 친구 따라 올라간 산에 폭 빠져 시작한 등산 그리고 주 2회 글쓰기, 매일 하늘 보고 사진으로 남기기, 음식점 리뷰 쓰기 등등 뭔가 하는 게 자꾸 늘어가며 나는 어느새 취미 부자가 되어간다.

내가 취미로 등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 또한 여전히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꽤 고가의 등산화와 등산 스틱까지 마련했으니 이제 누가 뭐래도 등산이 취미인 것이 맞다.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스타일보다는 기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여차피 내려와야 할 산을 굳이 오른다. 숨이 턱밀까지 차오르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다리도 무겁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집에 가서 눕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오를수록 체력은 바닥나고 남들은 날다람쥐같이 쾅하니 내려가는 길도 내게는 버겁지만 하다. 하지만 그래도 자주 산에 오르고 싶다. 산을 오르는 내내 계속해서 바뀌는 풍경이 너무 좋고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제각각인 것도 재미있다. 등산 이야기 시작하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조만간 칼럼에서 등산 이야기를 풀게 될 것 같으니 이 정도로 마무리.

아무튼 요즘 러닝에 등산에 PT에 최근 식단까지 실천한다고 하니 주위에서 너무 날씬해지는 거 아니냐며 은근 부담을 주는데…… “나를 힐끔힐끔 훑어보지 말아 줘요. 아직 눈에 드러나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전 그냥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 안 하던 운동 좀 하고 조금 덜 먹는다고 외관이 그렇게 확 달라진다면 세상 너무 거저지. 열심히 내 능력껏 다양한 운동을 실천 중이지만 여전히 뒤통 힘이 든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박수가

요동치고 숨이 거칠어진다. 운동 후 찾아오는 근육통에 가끔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고 등산 다녀오면 반드시 잠시라도 낮잠을 자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미로 러닝을 하고 등산을 한다니 정말 인생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취미는 그저 여유를 즐기거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단 한번 단 한 시간이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폭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것, 그것이 취미이다.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면서 정말 오랜만에 흥쾌이 열리며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다. 꽤 오랫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응어리들이 나를 옥죄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시작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년 아줌마에게 결핍되기 쉬운 자존감을 충전하기도 한다. 꽤 오랫동안 내가 아닌 누군가를 쫓고 돕는 조력자와 같은 삶만 살다가 나를 위한 다양한 취미들이 생기니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짐을 느낀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배우는 것은 연령 상관없이 몹시 설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시작하고 배운다고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갓 결혼했을 때 너무 예쁜 미니 재봉틀을 사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일단 재봉을 배우는 게 우선일 것 같았다. 마침 시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재봉 클래스가 있어서 수강 신청을 했다. 아직 아이도 없을 때였으니 주 2회 퇴근 후 바로 가기 좋은 시간이었다. 미국은 옷을 수선해 입으려면 비싼데 배워서 바지 단도 줄여 입고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옷도 직접 만들어 입히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배워보니 전혀 즐겁지 않았다. 나는 바느질이 빼놓아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가 그런

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물론 연습하면 점점 나아지겠지만 그러기까지 내가 받게 될 스트레스가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그래서 수업 2회 만에 앞으로 수선은 수선집, 옷은 옷가게에서 사입기로 결심했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애도 많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해? 안 힘들어? 이유가 뭐야? 목표가 있는 거야?라고 묻는다면…… 글썄…… 뭔가 근사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면 오히려 취미를 온전히 즐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취미만큼은 너무 큰 목표나 부담감 없이 진지함 싹 빼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 애초에 그래서 좋았던 거니깐…… 거기에 의무감이나 목표, 성과 같은 것이 보태진다면 흥미가 싹 사라질 것만 같다. 좋아하는 취미들이 생긴다는 건 세상 사는 재미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 이대목이 좋다.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일단 즐기기로! 하지만 러닝이나 등산은 돈 안 드는 취미라고 누가 그랬나요? 굳이 요란하게 장비발 세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갖추는데도 이래저래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가서 깜짝 놀랐네.

보태기- 아, 지난주 노안이 왔다고 칼럼을 썼는데 며칠 전 확인차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 아니라네요? 테스트 몇 개 해보더니 아직 아니랍니다. 안경 도수가 너무 높으면 가까운 글씨가 선명하지 않을 수 있대네요. 다 행이죠?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어바인 2층집타운홈 985천

어바인 Great Park 방3 화3 2016년 1963 sqft



아직 마켓에 안나온 부에나팍 싱글홈 739천

방 4개 화 4개 1900 sqft 1966년 이층집 2 car garage



풀러튼 단층집 97만

포텐셜 많은 지역, 엑스트라 인컴 ADU듀플렉스 방 5개 화 2개 2000sqft 대지 7400 sqft



사이프레스타운홈 699천

방 3개 화 3 1595 sqft 2005년
타운홈 아주 관리 잘되어 있는 무브인 컨디션



부에나팍 로스코요테 골프 코스 안 새집 분양

The Villas at Los coyotes Country club
방2 ~ 방4 1630 sqft ~ 3550 sqft 최고 위치/학군
*무조건 돈 버는 집 *분양 안내와 가격은 전화 주세요



라미라다 새집 분양 749천

방 3개 화 3개 1775 sqft 2021 타운홈
*분양 안내와 가격은 전화 주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